

## 의류산업의 국제생산시스템 변화와 새로운 글로벌 액티비즘

전명숙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The Change of the Global Production System in the Garment Industry and the New Global Activism

Myung-Sook Jun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 1. 도입

나이키나, 리복 등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 등 저임금국가 하청공장에서 빈번하게 여성노동자와 아동을 착취한다는 정보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더욱이 9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의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대거 인근 아시아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한국 기업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방식에 대한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적인 여론 역시 생소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의류산업은 최근 국제교역과 생산 그리고 노동의 공간적 패턴을 밝히기 위한 학문적인 연구주제로써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노동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운동 단체들의 주요 관심분야가 되고 있다.

본문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되었지만 의류산업의 국제생산시스템변화와 저임금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이미 Gary Gereffi(1994, 2002, 2003)를 통해 체계화된 바 있다. Gereffi에 따르면 의류, 신발, 완구 등 수요자주도형 가치사슬의 특징을 보이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거대한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big buyers)가 생산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이들 거대 초국적기업은 제품개발 및 디자인 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에 중점을 두는 반면, 생산은 주문자 위치에서 전 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하청공장을 통해 이룬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적인 가치사슬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제조기능을

통해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 속에 통합되어 있는 저임금 국가의 대다수 하청업체들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상당히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청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도 특히 한국, 대만, 홍콩은 국제 하청기지의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활동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제적 업그레이딩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제생산네트워크 속으로 편입된 많은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아래로 향한 경쟁심화 속에서 살아남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역할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글에서는 의류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생산시스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거버넌스 구조변화 및 생산의 공간적 패턴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90년대 후반이후부터 사회과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가치사슬모형”(Global Value Chain Model, 이하 GVC)이 집중적으로 소개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의류산업의 생산시스템이 변화함에 따라 야기되는 다양한 고용상의 문제를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문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액티비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스웨트샵 반대운동(노동착취공장 반대운동, Anti-sweatshop movement)을 중심으로 어떻게 미국의 의류다

국적 기업들이 자체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하청업체에 대한 외부 감시프로그램에 동의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다.

## 2. 의류산업의 국제생산시스템 변화

### 2-1. 거버넌스 구조

최근 의류산업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공장없는 제조업자들”이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이키(Nike), 리복(Reebok), 갭(Gap), 리미티드(The Limited) 등 초국적 의류기업들은 본사에 생산공장을 두지 않은 채 브랜드관리에만 중점을 두며, 주로 제3세계에 존재하는 하청공장을 통하여 의류 제조를 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수익은 제조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이나 디자인, 판매, 마케팅, 금융 등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상업자본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의류산업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핵심적인 특성을 이론적으로 가장 잘 정리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 Gary Gereffi(1994, 2002, 2003)이다. 그는 상품의 기획과 생산, 판매에 이르는 가치 사슬의 전 과정에 주목하는 국제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 모델을 통해 국제적인 생산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GVC 모델에서는 조직과 기능의 국제적 분업 및 거버넌스 구조에 관심을 갖는데, 즉 기업경영의 각 영역인 제품개발 및 디자인, 생산, 마케팅 등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면서 초국적 거대기업에 의하여 전체 네트워크가 조정되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

Gereffi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가치사슬은 생산자주도형(producer-driven value chain)과 수요자주도형(buyer-driven value chain)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생산자주도형 가치사슬은 자동차, 항공기, 컴퓨터, 반도체 등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전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반면 의류, 신발, 완구 등에서 나타나는 수요자주도형 가치사슬은 거대한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big buyers)가 주도하는 네트워크로서 이들 초국적기업은 제품개발 및 디자인 개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생산은 주문자 위치에서 전 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하청공장을 통해 이룬다. 따라서 공급자주도형 가치사슬의 초국적기업들이 주로 규모의 경제와 선진 기술에 의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이들 수요자주도형 거대기업은 브랜드관리 및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남긴다. 그러나 GVC 모델에서는 두 경우 모두 수익의 원천

이 되는 핵심자원(신기술, 브랜드 등)에 대해 일반 기업들의 진입장벽은 높다고 보며, 따라서 이러한 자원에 기반하여 거대기업은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권력을 갖게 된다고 분석한다.

1990년대 후반이래로 GVC 모델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 모델을 분석틀로 하여 다양한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수요자주도형 가치사슬모델은 선진국 내부의 산업재구조화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딩의 조건을 분석하는데도 주요하게 활용되었다. 의류산업을 통한 개도국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에 따르면(Jennifer Bair and Gary Gereffi, 2002), 점점 더 많은 개도국이 국제생산네트워크에 편입함에 따라,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이들 국가들이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개도국들이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임금 저숙련에 기반한 단순조립(assembly production)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생산의 전 공정을 취급할 수 있는 주문자상표부착(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석한다.

한편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의류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것은 미국 의류산업의 재구조화과정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는 미국 내 초국적기업의 국제적인 소싱전략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onacich & Waller(1994)는 “환태평양국가 삼각체제”(Pacific Rim Triangle) 분석을 통해, 어떻게 아시아국가와 카리브해 인근 국가가 미국의 의류생산네트워크 속에 편입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환태평양 국가 삼각체제는 미국 의류업체가 국제 소싱전략의 일환으로써 일본으로 이동하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이후 의류산업의 국제화는 홍콩, 한국, 그리고 타이완으로 이어졌으며, 보다 최근에는 카리브해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의류산업의 국제화에 따른 생산의 공간적 패턴을 살펴보겠다.

### 2-2. 생산의 공간적 패턴

1950년대 이래로 미국으로부터 아시아 지역으로의 의류 생산기지 이동은 계속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1950년대와 60년대 초 북미와 유럽에서부터 일본으로의 이주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일본에서부터 홍콩, 타이완, 그리고 한국으로의 전환이었으며, 이후 이들 국가들은 1970년대와 1980년

대 중반까지 전세계 의류수출 중심국으로 부상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세 번째 의류산업의 이동이 전개되었는데, 아시아의 “빅 쓰리”인 홍콩, 타이완,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다른 개도국으로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 당시 의류생산은 중국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었으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예컨대 인도네시아, 태일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스리랑카 등으로도 옮겨갔다. 마침내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들어와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 남부 아시아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 등이 주요한 의류 수출국으로 포함됨에 따라,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가 의류생산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미국 의류시장에서 국가와 지역 간 비중변화는 왜 발생하는가? 많은 연구자들은 쿼타(quota)와 특혜 관세에 대한 소매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제조업자의 전략적 대응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의류와 섬유 아이템에 대한 쿼타 통제는 1970년대의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에 의해 규제되었으며, 1995년 이래로는 섬유와 의류에 대한 WTO 협정에 의해 규제되었다. 이러한 쿼타 제한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 자국의 의류와 섬유 제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물량제한을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 자국의 의류산업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러한 제한이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즉 몇몇 해외 의류 제조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다. 실력을 갖춘 해외 하청업체들은 보다 더 정교한 제품생산을 통해 쿼타 제한을 피해나가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다른 저가품을 판매하는 개도국과의 경쟁을 피해나가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의류시장 내에서는 고가품과 저가품에 따른 생산지의 차별화가 심화되었다. 보다 최근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따른 특혜 관세로 인해 미국의 류업체의 소싱전략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미국시장에서 멕시코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었다.

### 3. 새로운 글로벌 액티비즘-스웨트샵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이처럼 의류산업의 글로벌화는 지난 수십년 동안 생산 및 교역이 점차 조율되고 통합되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였던 다국적 기업들은 자회사 및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거나 기타 유

사 계약을 맺고 생산시설을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이를 통제하였으나, 이제는 대기업들이 공식 소유권이나 기타 법적 관계가 전무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부터 직접 조달(direct sourcing)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글로벌 생산 시스템’은 저임금 국가에서 신속한 고용 확대의 기반이 되었으나 이러한 형태의 고용은 유연한 형태로서 지위가 불안정하고 저임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수가 법적·사회적 보장이 취약한 고용 조건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동안 의류 산업의 국제화를 통해 저개발국가는 경제적 업그레이딩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회적 업그레이딩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논의(Barrientos, 2006)<sup>1)</sup> 와 함께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노동운동과 인권운동 그리고 국제기구 등 다양한 조직들의 결합을 통하여 전세계적인 생산망을 갖는 다국적기업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스웨트샵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액티비즘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 3-1. 배경

스웨트샵 반대운동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1990년대부터 노동운동, 인권단체, 그리고 학생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스웨트샵 반대운동은 나이키나 갭 등 국제적 브랜드를 가진 다국적 기업을 중요 표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의류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초국적 의류기업들은 본사에 생산공장을 두지 않은 채 브랜드 관리에만 중점을 두며, 주로 자국 내 저임금 이민 여성노동자나 제3세계에 존재하는 하청공장을 통하여 의류제조를 한다. 이에 따라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행정당국이나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전형적인 노동착취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스웨트샵 반대여론을 주도했던 노동운동, 인권단체, 그리고 학생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행정당국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95년 클린턴 행정부에 이르러서였다. 당시 미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의류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 여성들의 비참한 작업실태가 폭로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류산업 파트너십(Apparel Industrial Partnership, 이하 AIP)”이라는 태스크 포스를

1) ILO는 저임금 국가 근로자들의 사회적 업그레이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네 가지 축은 ‘고용, 사회보장, 기본권, 사회적 대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성하였다. AIP는 제조업체, 노동조합, 인권단체, 그리고 노동부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임금지불, 13세 이하의 아동노동금지, 주 6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행동수칙을 수립하였다. 1998년 11월, AIP는 이러한 행동수칙을 집행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공정노동협회(Fair Labor Association, 이하 FLA)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많은 노조와 인권단체들은 AIP 행동수칙이 지나치게 약할 뿐 아니라(즉 자발적인 집행에 의존할 뿐 아니라 생활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 감시 프로그램 역시 독립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다고 비판하면서(예컨대, 의류업체가 감시받아야 할 공장과 감시할 주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지나치게 많이 줄뿐만 아니라 감시보고서가 공공에 보고될 필요가 없게 한 점 등) AIP를 탈퇴하기 시작했다(Bonacich & Appelbaum, 2000).

행동수칙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은 스웨트샵에 반대하는 학생활동가들이 이들 노조와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미국 전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이들의 활동 목표가 된 대상은 25억 불에 달하는 대학교 라이선스였다. 대학은 학교 로고가 달린 티셔츠, 모자 등을 팔고 있는 제조업자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었는데, 1998년 30개 대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 로고를 달고 있는 제품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living wage)을 보장해주는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또한 제품들이 실제로 제조되고 있는 공장 위치의 공개, 독립적인 인권단체나 종교단체에 의한 공장 모니터링,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 등을 주장하였다.

몇몇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 등을 포함하는 과격한 시위에 가담했다. 그 결과 듀크, 조지타운, 브라운, 프린스턴, 예일, 위스컨신, 미시간 대학교 등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시위가 해결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9개의 대학에서도 학생들은 유사한 요구를 내걸었다. 1998년 여름, 학생들의 주장에 따라 대학당국은 행동수칙을 제정하였으나,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러한 행동수칙이 너무 미약하고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학교가 FLA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FLA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동수칙이 이미 몇몇 대학교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 상당히 미약하다는데 있었다. 학생들은 FLA는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상당히 약한 감시조항으로 인해 법적 위반에 대해 공

공에 공표하지 않으며 심지어 공장의 위치나 이름조차 공표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FLA는 회사가 자신들을 감시할 조직을 직접 선출하고 감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실제 위반은 감추면서 스웨트샵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Bonacich & Appelbaum, 2000).

각 대학교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생들의 이러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스웨트샵에 반대하는 학생연대(United Students Against Sweatshops, 이하 USAS)가 1998년 여름에 결성되었다. 웹사이트나, 오프라인 워크샵을 통해 USAS는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학생활동가들을 성공적으로 조율하였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공동의 행동수칙 요구안을 만들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을 공유하였다. 그들은 또한 행동수칙을 집행하고 있는 대학교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2000년 FLA의 대안적 기구로 노동자권리연합(Worker Rights Consortium, 이하 WRC)을 구성하였다. 미국의 노동조합총연맹(AFL-CIO)과 의류노동자노조(Union of Needleworkers, Industrial, and Textile Employees)의 지지를 받으며, WRC는 생활임금 보장, 독립 노조, 공표되지 않은 공장 감시, 그리고 작업장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 등을 주장하였다. 현재 FLA에 가담하고 있는 대학교는 155개에 이르며, WRC는 점차 그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가운데 80개의 대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 3-2. 행동수칙과 기업 감시 사례

의류업체를 규율하는 감시기구가 서로 양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수칙과 독립적인 감시 프로그램의 구축은 다국적 의류기업의 경영방침을 바꾸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겹사례를 들 수 있다. 1995년, 엘살바도르에 있는 겹의 하청공장(Mandarin International)에서, 작업환경에 항의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35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당 해고는 이미 겹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행동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겹은 하청공장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국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Committee)등과 같은 노동조직과 인권단체의 압력으로 겹은 하청공장 노동자의 일자리를 전적으로 잃게 만드는 계약 파기 대신 하청공장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에 있는 하청공장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감시기구(Inde-

pendent Monitoring Group)를 통해 작업조건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등에 있는 생산공장에 대해서도 감시기구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WRC의 경우도 멕시코에 있는 나이키 하청공장에 대해 이와 유사한 성과를 보였다. 예컨대, 2001년 1월 멕시코 푸에블라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인 소유의 하청공장(Kukdong, 이하 국동)은 작업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다섯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독립적인 감시 기구인 베리페(Verite)는 국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사의 자유, 작업장 폭력금지, 산업안전 등을 보장하는 나이키의 행동수칙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평가보고서가 발표되자, 2001년 3월, 국동이 나이키의 행동수칙을 따르도록 하는 일정표와 여러 가지 시정조치들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해고에 대하여 항의시위를 한 지 일주일 만에, 공장노동자들의 3분의 2가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Gerffi 외, 2001).

현재로써는 이러한 몇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직과 인권단체가 결합한 스웨트샵 반대운동은 일정정도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노동조건에 부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동조직은 저항이 심한 기업이 전향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캠페인 전략을 점차 세련화시키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공략하는 방식은 비록 10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 환경운동가가 말하였듯이, 마치 “화약”과 같은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기업의 수익이 가치사슬의 마지막 단계인 판매에 의존하는 거대한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big buyers)는—즉 갭이나 홈 데포(Home Depo)—기업 이미지 훼손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노동과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기업의 약점을 이용하여 구매거부, 중단배포, 그리고 다양한 직접적 행동 등을 통해 거대 기업으로 하여금 전향적인 노동, 인권, 그리고 환경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 4. 맺음말

이상 의류산업의 국제생산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거버넌스 변화와 저임금 국가 근로자들의 고용상의 문제들을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글로벌 ‘액티비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세계적인 생산망을 갖고 있는 나이키(Nike)와 갭(GAP)은 결사의 자유보장, 작업장 폭력방지, 산업안전 규정을 담고 있는 행동수칙을 수립하여 하청관계에 있는 생산업체들이 이러한 행동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감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다. 최근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미국의 몇몇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점차 세계적인 기업의 규범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의 경영방침 변화가 과연 다국적기업의 윤리의식이 향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국적기업이 점차 노동권과 인권, 그리고 환경에 민감해지는 것은 기업의 자발성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일차적으로는 노동, 환경, 인권단체 등 다양한 운동조직과 국제기구 등의 지속적 압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은 1999년 1월 각국 기업가들과의 모임에서 인권, 노동, 그리고 환경에 대한 9개의 원칙을 담고 있는 글로벌 협약(global compact)의 시행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현재 2,729개의 세계적인 기업이 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Eco-Frontier, 토지공사, 한전 등 3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이장원, 2006). 또한 UN의 협력기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2,000여개의 기업들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3가지 범주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ILO의 다국적기업선언에서도 다국적기업이 소싱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예컨대, 고용증대, 기회 및 처우 평등, 보건 및 안전, 결사 및 단체 행동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다국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인 압력으로 존재하리라고 본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국동 사례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에서 나타난 한국기업의 전근대적 노무관리에 대한 비판여론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인 소유의 기업은 당분간 외국의 노동, 인권 단체로부터 특별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한다.

우선 의류산업의 경우 한국은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전세계 의류수출 중심국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의류 생산국이 기존의 아시아 빅쓰리(big three)였던 홍콩, 대만, 한국으로부터 다른 개도국으로의 이전이 진행되었다. 중국과 동남 아시아 국가들,

예컨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이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 등이 주요 의류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국제적 생산네트워크 내에서 그 역할을 달리 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진행시켰다. 즉, 기존의 축적된 생산경험을 통해 제3세계에 있는 생산지와 선진국에 있는 거대 유통업체들을 연결시키는 중개인(middleman)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Bonacich & Waller, 1994; Gereffi, 1994). 현재 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많은 의류업체들이 세계적 브랜드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그 결과 의류 유통업체를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개도국 노동자를 관리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 한국의 중개인들은 국제적인 노동, 인권 단체의 일차적인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방식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과장되어 있든—, 이러한 이미지가 남아 있는 한 한국기업은 지속적인 감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는 움직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거스릴 수 없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4월 산업자원부가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이장원, 2006). 시민단체에서도—예컨대, 참여연대 국제 인권센터—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감시와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옥, 1999). 자료에 따르면 이 시민단체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 기업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지역 방문을 통해 감시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노동, 인권 단체의 노력에 더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이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권, 인권,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성숙한 기업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장원(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노동리뷰* 제 20호, pp. 28-40.
- 이정옥(1999), “다국적 기업감시와 인권,” <http://www.human-rights.or.kr>.
- Bair, Jennifer and Gary Gereffi (2002), “NAFTA and the Apparel Commodity Chain: Corporate Strategies, Inter-firm Networks, and Industrial Upgrading,” in Gary, Gereffi,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emple University Press, pp. 23-50.
- Barrientos, Stephanie (2006), “Global production Systems and Decent Work,” Working Paper, IDS.
- Bonacich, Edna and David Waller (1994), “Mapping a Global Industry: Apparel Production in the Pacific Rim Triangle,” in Bonacich, Edna, Lucie Cheng, Norma Chinchilla, Nora Hamilton and Paul Ong, eds., *Global production: The Apparel Industry in the Pacific Rim*,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p. 21-41.
- Bonacich, Edna and Richard Appelbaum (2000), *Behind the Labe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ereffi, Gary (1994), “The Organization of Buyer-Driven Global Commodity Chains: How U.S. Retailers Shape overseas Production Networks,” in Gary Gereffi and Miguel Korzeniewicz, ed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Westport: Praeger, pp. 95-122.
- (2002),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Asian Economies in the Apparel Commodity Chain*, ERD working paper series No. 5, Asia Development Bank.
- Gereffi, Gary and Olga Memedovic (2003), “The Global Apparel Value Chain: What Prospects for Upgrading by Developing Countries?,” UNIDO.
- Gereffi, Gary, Ronie Garcia- Johnson, and Erika Sasser (2001), “The NGO-Industrial Complex”, *Foreign Policy*, July/August 2001, pp. 56-65.

## 전명숙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노사관계학(박사)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국제협력실장)  
 E-mail : msjun@kli.re.kr